

아 한번더 입을 벌려주세요

Honor'e Daumier 作(1810~1879)



Nun wollen wir mal den Mund aufmachen.

Daumier는 주로 독학을 한 石版画家로서 알려져 있다.

주로 유행, 세상이야기, 정치, 풍속등에 관하여 풍자와 제단이 풍부한 화가로서 만년에는 실명을 했지만 그는 총 9천매의 작품을 남겼다.

“KULTOURGESCHICHTE

DER ZAHNHEILKUNDE에서”

본 란은 치과기공소 광고란 인바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중단하게 되었음에 독자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.